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CUOMO 주지사, 뉴욕주 기관들이 이제 무료 언어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함을 발표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인들이 중요한 정부 관련 서비스에 액세스하도록 이제 뉴욕주 기관들이 영어를 제외한 6 개의 주요 언어에 대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을 발표했습니다.

2011 년 10 월 6 일 Cuomo 주지사는 대중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주 기관들이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 (LEP)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약 250 만 명의 뉴욕인들을 돕기 위해 이들의 외국어 액세스를 증가시키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 26 번을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뉴욕주 기관들은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라 뉴욕주 내 LEP 커뮤니티의 다수가 사용하는 영어 이외 6 개 국어인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및 아이티 프랑스어에 대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관들은 권리 관련 필수 문서, 양식 및 서면 통지를 이 6 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사용하는 언어와 무관하게 모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주 기관들은 뉴욕주 내 영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 명령의 실행으로 저희들은 주 정부가 뉴욕주 내 거주 중인 많은 다양한 문화와 커뮤니티를 위해 진심으로 일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약 22%의 뉴욕인들이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약 30%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노동 인구의 27% 이상이 이민자입니다. 뉴욕시 인구 중 1/3 (37%) 이상이 이민자이며, 뉴욕시 노동 인구 중 1/2 (46%)가 이민자입니다.

주지사의 언어 액세스 지시로 각 주 정부 기관들은 다른 언어가 추가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최소 매 2 년마다 언어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뉴욕주 언어 액세스 연합 The New York State Language Access Coalition 의 Theo Oshiro 는, “Cuomo 주지사 덕분에 이제 수백만 명의 뉴욕인들이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중대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및 혜택에 동등하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에게 대단한 희소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합은 Make the Road New York, Center for Popular Democracy, New York Lawyers for the Public Interest, Legal

Services NYC,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및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inKwon 센터의 Steve Choi 는, “Cuomo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뉴욕주의 많은 새로 이민 와서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분들을 위한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아시아계 미국인 및 이민자들이 정부의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언어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익을 대변하는 뉴욕주 변호사 협회의 Katherine Terenzi 는, “뉴욕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행정 명령은 주민들이 주 정부와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어 액세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노동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labor.ny.gov/immigrants/language-access.shtm>